

Research Center

2015년 9월 7일

투자전략 Daily

• Strategic Insight

Reality Check : Waiting for FOMC

• 이머징마켓 동향

주요 이머징증시 혼조세, 중국 휴장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피에스텍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SK텔레콤 외 5개 종목

• 산업분석

휴대폰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캘린더

자산배분전략 | 노근환 ☎ 3276-6226

투자전략 | 박소연 ☎ 3276-6176

시황분석 | 김대준 ☎ 3276-6247

글로벌전략 | 박중제 ☎ 3276-6560

계량분석 | 안혁 ☎ 3276-6272

파생/ETF | 강송철 ☎ 3276-6181

스몰캡전략 | 정훈석 ☎ 3276-6232

이머징마켓 | 윤항진 ☎ 3276-6280

경제분석 | 박정우 ☎ 3276-6229

채권분석 | 이정범 ☎ 3276-6191

크레딧 | 김기명 ☎ 3276-6206

REITs | 이수정 ☎ 3276-6252

truefriend 한국투자 증권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8/28(금)	8/31(월)	9/1(화)	9/2(수)	9/3(목)	9/4(금)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937.67	1,941.49	1,914.23	1,915.22	1,915.53	1,886.04	
	등락폭	29.67	3.82	-27.26	0.99	0.31	-29.49	
	등락종목	상승(상한)	659(0)	371(2)	223(0)	352(0)	401(1)	115(3)
		하락(하한)	154(0)	446(1)	600(0)	448(0)	396(0)	717(0)
	ADR	90.31	87.46	85.63	81.38	78.18	72.55	
	이격도	10 일	101.60	101.95	100.74	100.92	100.93	99.32
		20 일	99.01	99.43	98.27	98.61	98.92	97.72
	투자심리	40	50	50	60	70	70	
	거래량 (백만 주)	447	351	324	342	297	358	
	거래대금 (십억 원)	6,519	6,024	4,831	5,014	4,624	4,643	
코스닥	코스닥지수	687.96	687.11	672.94	678.02	678.25	650.45	
	등락폭	14.25	-0.85	-14.17	5.08	0.23	-27.80	
	등락종목	상승(상한)	659(3)	371(3)	223(3)	352(6)	401(5)	133(1)
		하락(하한)	154(0)	446(0)	600(0)	448(0)	396(0)	934(0)
	ADR	91.55	88.43	87.09	83.68	81.46	74.48	
	이격도	10 일	103.24	103.65	101.93	102.58	102.28	97.74
		20 일	98.27	98.42	96.67	97.77	98.25	94.89
	투자심리	40	50	50	60	70	70	
	거래량 (백만 주)	434	390	457	487	553	602	
	거래대금 (십억 원)	2,606	2,475	2,915	3,207	3,141	3,551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673.3	1,157.3	752.1	220.8	108.2	201.1	31.1	15.4	175.604	86.2
	매도	2,469.2	1,184.4	970.6	294.2	138.3	204.5	70.5	20.7	242.5	44.7
	순매수	204.2	-27.1	-218.5	-73.3	-30.1	-3.4	-39.5	-5.4	-66.9	41.5
	9월 누계	553.9	-244.4	-471.1	-354.7	-1.5	60.0	-108.3	-19.7	-46.9	161.6
	15년 누계	4,072.1	2,144.3	-7,221.8	-5,512.5	-1,004.2	-4,563.8	-812.0	-960.5	5,631.2	1,005.4
	코스닥	매수	3,277.3	159.0	115.1	36.1	10.5	33.9	7.1	3.0	24.6
매도		3,091.8	233.2	225.4	69.8	33.4	48.5	20.2	3.9	49.6	33.1
순매수		185.5	-74.2	-110.2	-33.7	-22.9	-14.7	-13.1	-0.8	-24.9	-1.1
9월 누계		395.1	-139.2	-245.6	-73.5	-46.5	-41.6	-21.0	-0.4	-62.6	-10.3
15년 누계		1,446.6	-765.6	853.6	-450.3	343.6	934.3	-70.5	-277.9	374.4	-1,534.7

Reality Check : Waiting for FOMC

2015년 Target KOSPI	2,300pt
12MF PER	9.42배
12MF PBR	0.85배
Yield Gap	9.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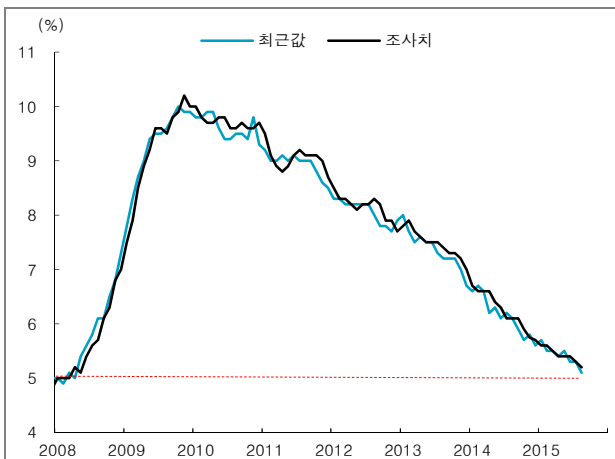
- ▶ 4일 발표된 미국 8월 고용지표는 엇갈리는 모습
- ▶ 원/달러 NDF 환율 1,200원 상향 돌파하는 등 주요 신흥국 통화 가치 하락
- ▶ 투자전략 : FOMC 전까지 보수적인 시각, 환율 수혜주 주목할 것

■ 애매모호한 미국 8월 고용지표

현지 시간으로 4일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는 지표별로 엇갈렸다. 실업률은 5.1%로 2008년 3월 이후 최저점을 기록했지만, 민간 부문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은 전년 동월비 2.2%로 전월과 동일했다. 반면, 비농업부문고용자수 증가는 17만 3천건으로 전월 24만 5천건과 비교했을 때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면서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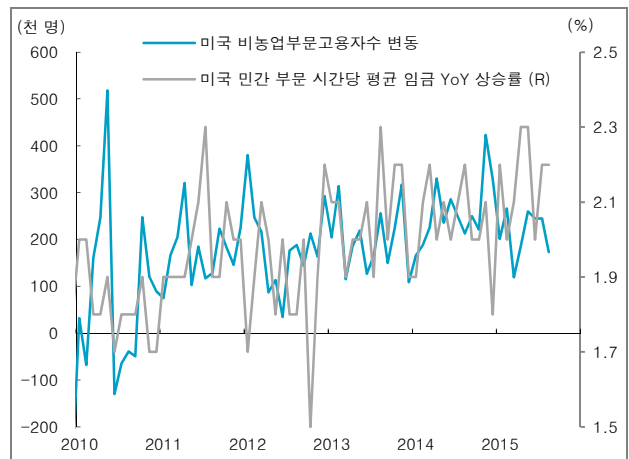
9월 FOMC에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놓고 시장은 그 동안 8월 고용지표에 촉각을 기울여왔다. 지난 28일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2주 가량 시간이 남아있다’면서, ‘그 2주는 향후 발표되는 데이터와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을 관찰할 시간’이라 발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림 1] 미국 8월 실업률 : 2008년 수준 회복



자료: Bloomberg

[그림 2] 미국 비농업부문고용자수와 시간당 평균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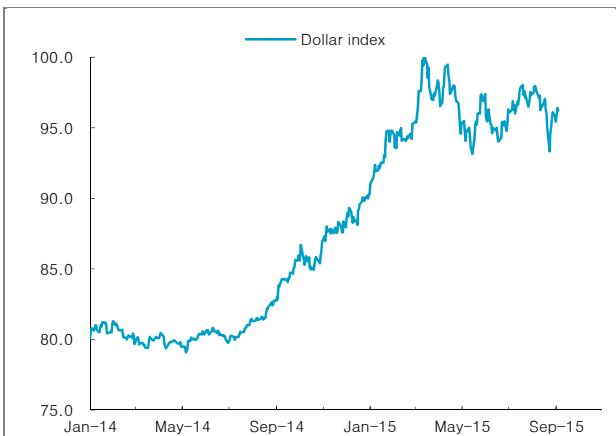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Reality check #1 :
고용지표 발표 직후 시장의 움직임

시장은 호재와 악재가 뒤섞인 미국 8월 고용 지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발표 직후 전일 하락했던 변동성 지표인 VIX는 반등하면서 25를 재차 상회했고, 미국 S&P 500 지수와 유로 스톡스 50 지수는 각각 1.5%, 2.8%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다. 업종 중에서는 소재, 산업재 등 시클리컬 업종의 약세가 두드러진 반면, 헬스케어, IT 등의 업종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낙폭을 보였다. 통상 QE 종료나 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의 변화가 예고됐을 때는 바이오 등 밸류에이션이 높은 업종의 낙폭이 컸는데, 업종 이익 추정치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하락세 역시 제한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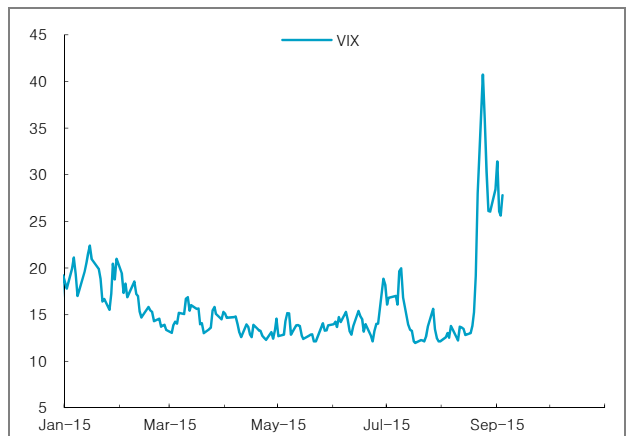
반면, 신흥국 관련 지표는 모두 기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시아 6개국 통화와 미국 달러의 가치를 연동한 JP모건 아시아 달러 지수는 전일비 0.46% 하락했는데 이는 2015년 들어 지수 변동폭의 평균이 0.03% 정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큰 폭의 하락세다. 선진국과 신흥국 국제 금리 차이를 나타내는 JP모건 EMBI 스프레드 역시 재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3] 달러 인덱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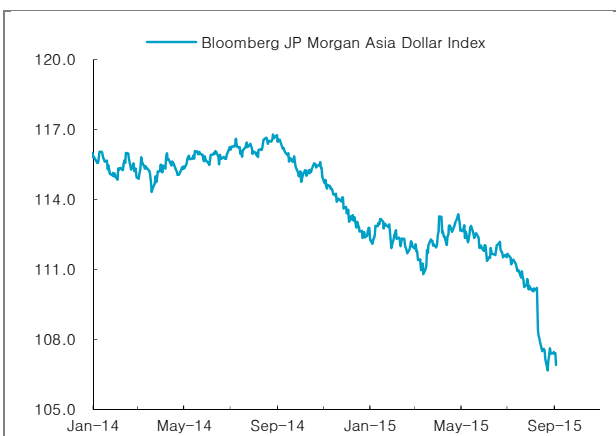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그림 4] VIX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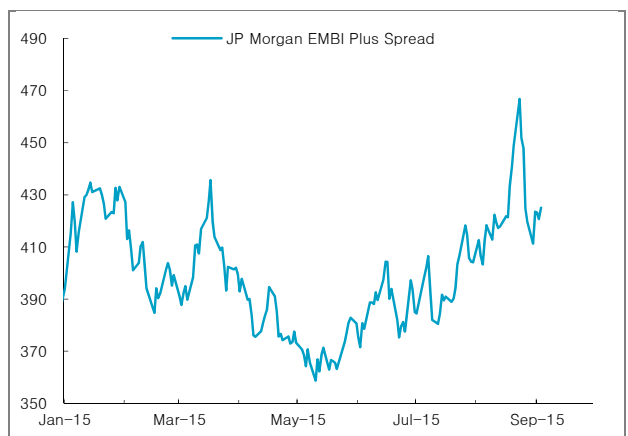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그림 7] JP모건 아시아 달러 인덱스



자료: Bloomberg

[그림 8] JP모건 EMBI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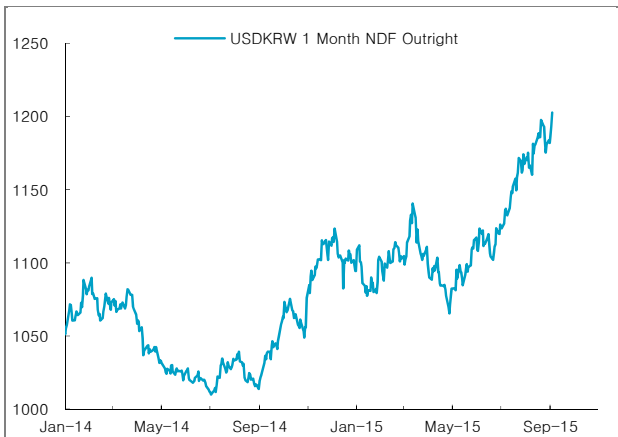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Reality check #2 :
패닉하는 환율 시장

고용지표 발표 직후 환율 역시 민감한 움직임을 보였다. 달러 인덱스는 기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여 소폭 상승한 반면, 신흥국 달러 인덱스는 하락했다. 주요 통화 NDF 환율 역시 상승세를 보였는데, 특히 원/달러 NDF 환율은 증가 기준으로 2009년 3월 이후 처음으로 1,200원을 상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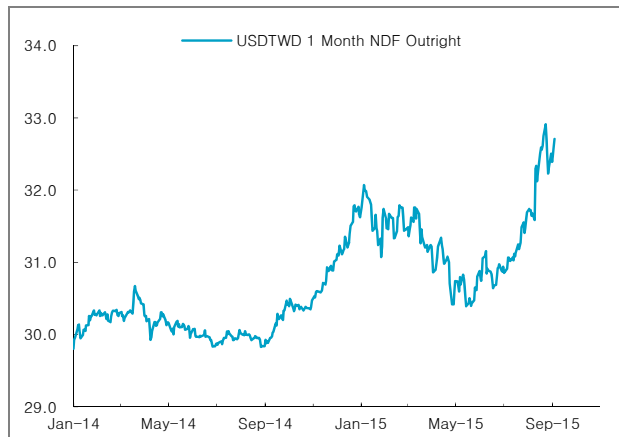
달러 강세가 원자재 가격 약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되면서 주요 원자재 수출국 환율 역시 급등세를 보였다. 특히 브라질 헤알화의 경우 3월 고점을 뚫고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는 미국 금리 인상 우려, 원자재 가격 약세 외에도 정치 스캔들 및 경기 부진 등 국내 요인에 의해 야기된 불안감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급등하는 헤알화를 방어하기 위해 올 초부터 8월까지 7개월 간 기준금리를 연속적으로 인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알화는 연초 대비 45%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다.

[그림 9] 한국 원 NDF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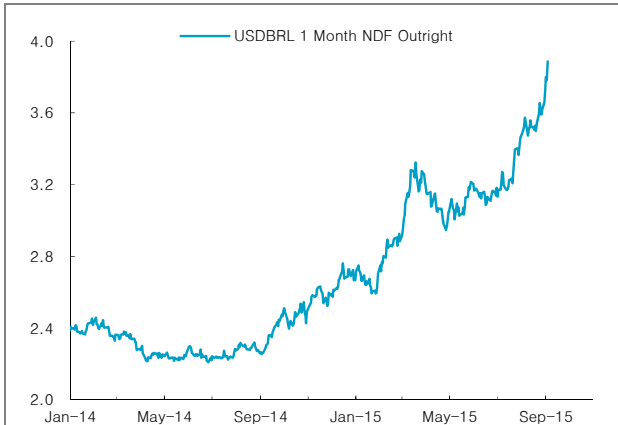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그림 10] 대만 달러 NDF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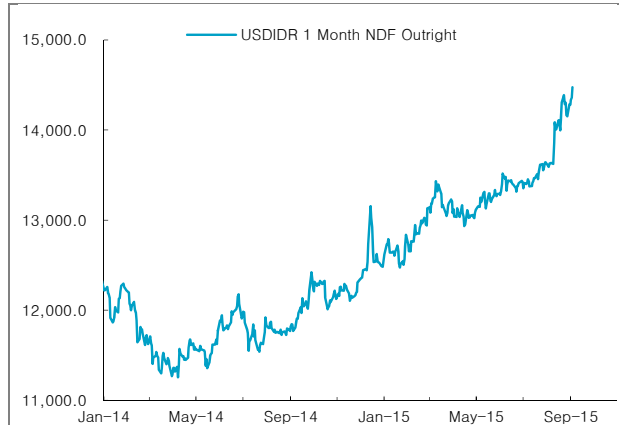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그림 11] 브라질 헤알 NDF 환율



자료: Bloomberg

[그림 12] 인도네시아 루피아 NDF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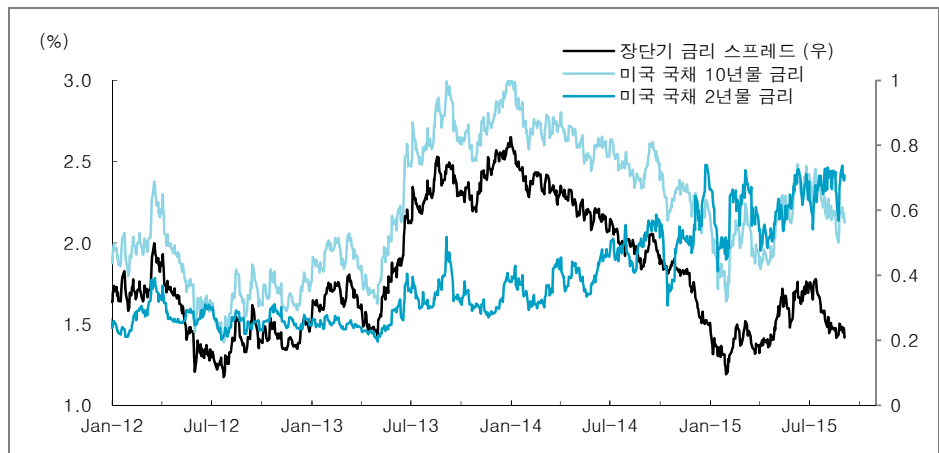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Reality check #3 : 기준 금리 인상과 펀더멘털

미국 채권 시장 역시 향후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하는 모습이었다. 미국 국채 금리 2년물은 전일비 약 1.5bp 상승 마감한 반면, 10년물과 30년물 등 장기채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정책 기조를 반영하는 단기 금리가 상승했다는 것은 시장이 단기간 내에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우려되는 점은 장기 금리가 오히려 하락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장기 금리 상승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다. 따라서 장기 금리가 하락했다는 점은 경기 전망이 부정적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결국, 장기 금리의 하락과 단기 금리 상승에 의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축소는 시장에 ‘기준 금리 인상을 감내할 수 있는 펀더멘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반영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시장의 펀더멘털 회복에 대한 믿음이 약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금리 인상을 강행할 경우 시장은 더욱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림 13] 미국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투자전략 : FOMC 전까지 보수적인 시각, 환율 수혜주 주목할 것

시장은 FOMC까지 큰 방향성 없는 등락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 및 신흥국의 경기 성장 둔화라는 악재로 예민해진 상태기 때문에 조그만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변동성 역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시장에 뚜렷한 호재가 부재한 가운데 9월 FOMC 전까지는 변동성만 높아진 가운데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미 시장이 9월 FOMC에서의 금리 인상을 일부 반영한 가운데, 다른 편에선 9월 FOMC에서의 금리 동결을 예측하는 시장의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의 설문 조사에 의하면 정책 금리 동결과 인상 가능성은 각각 70%, 30%로, 바로 전 주 예상치와 비교해서 동결을 예측하는 쪽이 더 커졌다.

10월 FOMC에서도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쪽이 우세한 반면, 12월 FOMC에서는 반반이고, 내년 1월 FOMC에서는 인상을 할 것이라는 쪽이 우세하다. 이는 시장이 인상 시기에 대한 이견만 있을 뿐, 금리 인상 자체를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표 1> 9월 FOMC에서의 예상 유효 정책 금리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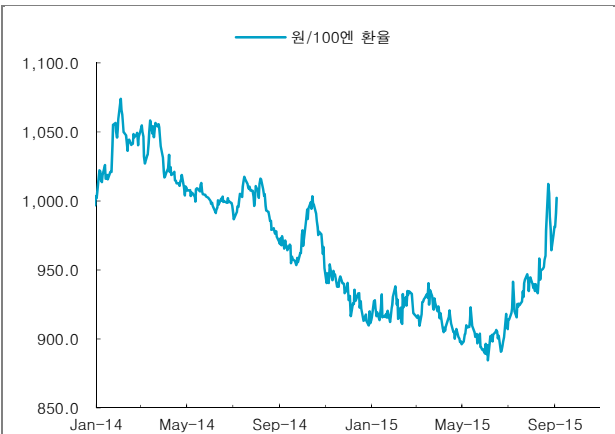
	0.125	0.375	0.625	0.875	1.125	1.375
2015-03-13	24.2%	46.1%	25.3%	4.2%	0.1%	0.0%
2015-03-20	32.1%	47.9%	17.9%	2.1%	0.0%	0.0%
2015-03-27	42.3%	44.4%	12.3%	1.0%	0.0%	0.0%
2015-04-03	51.8%	40.7%	7.1%	0.4%	0.0%	0.0%
2015-04-10	44.9%	44.8%	9.7%	0.6%	0.0%	0.0%
2015-04-17	53.0%	40.3%	6.4%	0.3%	0.0%	0.0%
2015-04-24	56.3%	37.6%	5.8%	0.3%	0.0%	0.0%
2015-05-01	52.3%	39.9%	7.5%	0.4%	0.0%	0.0%
2015-05-08	60.9%	34.3%	4.6%	0.2%	0.0%	0.0%
2015-05-15	63.6%	32.9%	3.4%	0.1%	0.0%	0.0%
2015-05-22	54.2%	39.9%	5.7%	0.2%	0.0%	0.0%
2015-05-29	60.1%	35.9%	3.9%	0.1%	0.0%	0.0%
2015-06-05	46.7%	46.8%	6.3%	0.2%	0.0%	0.0%
2015-06-12	46.7%	46.8%	6.3%	0.2%	0.0%	0.0%
2015-06-19	65.8%	32.4%	1.8%	0.0%	0.0%	0.0%
2015-06-26	63.9%	34.2%	1.9%	0.0%	0.0%	0.0%
2015-07-02	69.6%	28.9%	1.6%	0.0%	0.0%	0.0%
2015-07-10	69.1%	29.8%	1.1%	0.0%	0.0%	0.0%
2015-07-17	61.4%	37.1%	1.4%	0.0%	0.0%	0.0%
2015-07-24	59.5%	39.0%	1.5%	0.0%	0.0%	0.0%
2015-07-31	60.0%	40.0%	0.0%	0.0%	0.0%	0.0%
2015-08-07	46.0%	54.0%	0.0%	0.0%	0.0%	0.0%
2015-08-14	52.0%	48.0%	0.0%	0.0%	0.0%	0.0%
2015-08-21	66.0%	34.0%	0.0%	0.0%	0.0%	0.0%
2015-08-28	62.0%	38.0%	0.0%	0.0%	0.0%	0.0%
2015-09-04	70.0%	30.0%	0.0%	0.0%	0.0%	0.0%

주: 음영 표시되어 있는 날짜는 해당 월 FOMC 직후의 수치, 15년 9월 4일 기준 유효 정책금리는 0.14%
 자료 : Bloomberg

물론 이 설문조사는 어디까지나 확률에 근거한 것이므로, 100%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다. 확실한 것은 9월 FOMC가 열리는 16-17일이 지나야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시장 방향성 역시 보다 뚜렷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 관점에서 9월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는 시그널이 나온다면 신흥시장은 시간을 벌게 될 것이지만, 전술했다시피 여전히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잔존한다는 점에서 시장의 움직임을 쉽사리 예측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 때까지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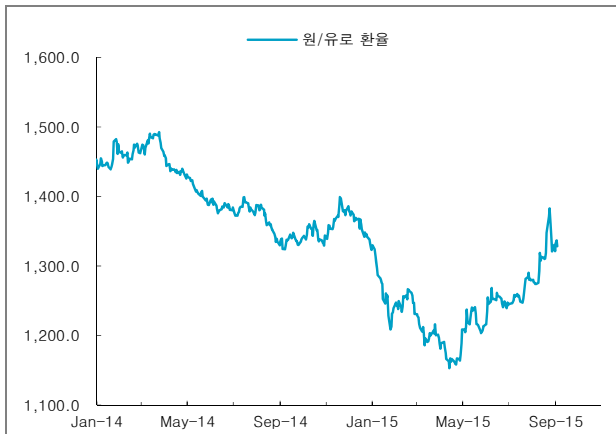
다만 환율 약세 트렌드가 지속될 점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수출 대형주의 상대강도는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원/엔 환율의 반등은 자동차, IT 등 일본과의 수출 경쟁도가 높은 업종들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의미한다. 실제로 지난 2월 발표된 8월 국내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의 점유율 상승은 이러한 환율 하락 효과가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출주와 supply chain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품/설비주 등 역시 주목할 만하다.

[그림 14] 원/100엔 환율



자료: Bloomberg

[그림 15] 원/유로 환율



자료: Bloomberg

■ Appendix 1 : 전주 동향 및 기업실적 추정치 변경

코스피는 이번 주 내내 ‘중국 증시 개장 전 강보합, 중국 증시 개장 후 하락’ 기조를 보인 후, 금요일에는 전승절 휴장에도 불구하고 미국 고용지표 발표를 앞둔 불안감에 큰 폭으로 하락하며 1,900pt를 재차 하회했다. 원/달러 환율은 재차 1,190원을 상회했고, 국고채 3년물은 1.70%를 하회하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업종 중에서는 전기전자, 통신, 자동차 등이 강세를 보였다. 통신은 방어적 업종 특성상 강세를 보였고, 자동차는 원/달러 환율 약세 수혜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다. 종목 중에서는 그룹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에 롯데 그룹 계열사들이 강세를 보였고, FTSE의 우선주 편입 소식에 현대차2우B와 현대차우 등 우선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증권 업종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 우려로 인한 증시 불황에 큰 폭으로 하락했고, 아모레퍼시픽(-12.4%) 등 화장품주의 경우 중국 경기 둔화로 인한 매출 감소 우려에 하락세를 보였다.

월 초인 관계로 거의 모든 업종의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된 가운데, 증권, 디스플레이, 유틸리티 업종은 눈에 띄는 하향 조정폭을 보였다.

<표> 업종별 주간 EPS 변화를 및 등락률 변화

Name	수익률 (%)			12MF EPS CHANGE (%)			12MF Valuation (X)	
	1W	1M	YTD	1W	1M	PER	PBR	
에너지	1.94	-6.25	19.31	1.06	6.31	7.59	0.71	
소재	-3.32	-8.94	5.87	0.02	3.30	10.53	0.74	
화학	-4.89	-8.86	32.27	0.04	8.51	10.12	0.98	
금속 및 광물	1.59	-4.74	18.48	0.04	2.58	12.53	1.27	
산업재	-4.47	-9.78	-1.40	-0.56	-17.19	18.73	1.00	
자본재	-4.81	-11.37	1.07	-0.15	-19.14	19.33	0.94	
건설	-4.83	-13.74	0.09	0.07	-6.20	12.07	0.69	
조선	-2.31	-26.46	-30.68	-2.05	-160.23	적자전환	0.49	
상업서비스	-3.70	6.70	19.64	0.00	0.20	19.62	2.75	
운송	-2.86	-4.14	-18.17	-2.42	-9.62	15.99	1.30	
경기소비재	-0.78	5.24	7.62	-0.02	-0.82	10.04	1.05	
자동차/부품	1.83	8.41	-15.32	0.05	-1.59	5.83	0.64	
내구소비재/의류	-4.14	0.38	48.92	-0.15	1.24	26.55	3.63	
소비자 서비스	-2.58	4.45	42.88	-1.18	-0.55	21.82	3.64	
미디어	-2.65	-2.78	30.05	-0.32	2.83	17.07	1.69	
유통	-0.18	8.85	25.69	0.04	0.84	14.46	0.91	
필수소비재	-2.54	5.39	41.17	0.24	2.67	21.37	2.18	
음식료/담배	-2.19	3.49	43.39	0.24	2.83	20.81	1.97	
생활용품	-4.58	12.68	32.02	0.00	2.47	24.84	5.52	
의료	-6.36	-12.02	90.71	-0.31	-0.47	43.74	3.42	
제약/바이오	-6.37	-12.00	91.18	-0.31	-0.47	43.74	3.42	
금융	-2.45	-3.30	-1.04	0.04	3.03	9.25	0.63	
은행	-1.84	-0.64	-5.57	0.00	3.29	7.37	0.47	
기타금융	1.17	1.34	25.42	0.00	1.00	10.65	0.72	
증권	-6.87	-10.08	20.95	0.30	4.67	9.83	0.82	
보험	-0.79	-4.24	-3.26	0.02	2.07	11.91	0.85	
IT	1.29	-8.70	-14.57	-0.84	-3.79	8.82	1.02	
소프트웨어	-0.72	-4.02	-6.47	-0.08	1.48	23.11	3.86	
하드웨어	0.16	3.25	-5.20	0.63	-6.84	13.47	0.88	
반도체	2.20	-9.70	-15.10	-0.84	-3.87	7.27	0.90	
디스플레이	-3.91	-7.34	-28.47	-2.69	-11.94	7.15	0.65	
통신서비스	1.01	0.07	-5.28	-1.59	-1.58	10.31	1.01	
유틸리티	-2.19	-0.78	10.92	0.23	2.56	5.47	0.53	

주: 표에 제시된 업종별 수익률은 3일 증가 기준, 추정치는 그 직전일 증가 기준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 Appendix 2 : 주간 글로벌 주식형, 채권형 펀드 자금 유출입

지난 주 한국 관련 4대 주식형 펀드군 중 선진국(International, Pacific) 주식형 펀드군에는 3.3억 달러가 순유입됐지만, 신흥국(Asia ex-Japan, GEM) 주식형 펀드군에는 50.7억 달러의 순유출세가 관찰됐다. 주요 신흥국에서는 소폭의 순유입세를 보인 브라질을 제외하고 모두 순유출됐다. 채권형 펀드 중에서는 미국 채권 펀드군을 제외한 모든 펀드군에서 순유출세가 관찰됐다.

〈표〉 글로벌 주식형 펀드 유출입

(단위: 백만달러)

구분	지역	자산규모	한국비중	자금유출입		
				최근 1주	최근 4주	2015년
선진국 투자펀드	International	2,005,656	1.2%	759	-3,715	79,077
	Pacific	45,860	4.9%	-424	-1,356	804
신흥국 투자펀드	Asia ex-Japan	337,490	12.9%	-2,846	-13,894	-26,677
	Global Emerging	374,106	9.8%	-2,219	-9,012	-20,130
	Latin America	18,517		-147	-856	-6,027
	Europe/Middle East/Africa	39,535		-94	-714	-1,427
주요 국가 및 국가군	Japan	288,379		2,295	6,939	43,433
	Western Europe	1,117,244		4,161	6,853	96,999
	United States	3,914,389		8,216	-12,309	-116,744
	China	115,904		-549	-4,315	-18,975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표〉 글로벌 채권형 펀드 유출입

(단위: 백만달러)

구분	지역별/시장별	자산규모	자금유출입		
			최근 1주	최근 4주	2015
전체 채권 펀드 (미국+신흥국+인터내셔널+하이일드)		3,603,578	-1,442	-15,567	95,092
신흥국 채권 펀드 (EM bond totals)		263,271	-2,990	-10,478	-10,767
	- EM 경화(\$) 채권	102,441	-1,548	-4,939	-4,736
	- EM 신흥국 통화 채권	114,564	-986	-3,807	-5,900
	- EM Blend 통화 채권	46,265	-456	-1,733	-130
인터내셔널 채권 펀드		1,174,876	-2,146	-1,438	21,327
하이일드형 채권 펀드		465,563	-938	-7,991	-820
미국 채권 펀드 (US bond totals)		1,699,868	4,632	4,341	85,352
	- Municipal	364,304	-617	-1,109	2,333
	- Floating Rate	100,814	-559	-1,972	-6,925
	- Inflation Protected	52,273	-115	-800	2,428
	- Inter. Term Corp.	30,576	-156	-337	1,917
	- Inter. Term Funds	416,747	791	67	37,237
	- Inter. Term Gov.	30,512	628	1,131	3,876
	- LT Bond	7,051	311	270	665
	- LT Corp.	35,006	164	35	4,864
	- LT Gov.	18,573	741	2,287	997
	- MBS	89,545	746	1,688	10,193
	- ST Bond	221,400	595	1,052	-8,063
	- ST Corp.	39,348	-171	-493	126
	- ST Gov.	42,867	1,581	4,195	6,131
	- Total Return	250,852	692	-1,672	29,575
기타 채권 펀드 (Other bond totals)		4,479,844	-29,942	-163	15,885
	- MMF 채권펀드	3,652,044	-28,908	4,547	-22,883
	- Balanced Funds	827,800	-1,034	-4,710	38,768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 Appendix 3 : 주요 증시 일정

7(월)	8(화)	9(수)	10(목)	11(금)
獨> 7월 산업생산 MoM (n/a, 0.9%, -1.4%)	美> 8월 NFIB 소기업낙관지수 (n/a, 95.9, 95.4) 日> 2분기 최종 GDP QoQ (n/a, -0.5%, -0.4%) 7월 BOP 경상수지(십억엔) (n/a, 1,814.8, 558.6) 中> 8월 수출 YoY (n/a, -6.1%, -8.3%) 8월 수입 YoY (n/a, -7.7%, -8.1%) 歐洲> 2Q 유로존 GDP QoQ (n/a, 0.3%, 0.3%)	中> 8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n/a, 1.9%, 1.6%) 韓> 8월 실업률 (n/a, n/a, 3.7%)	韓> 선물옵션동시만기일 日> 7월 기계수주 MoM (n/a, 3.3%, -7.9%)	韓> 금통위 금리 결정 (n/a, 1.50%, 1.50%)
14(월)	15(화)	16(수)	17(목)	18(금)
日> BOJ 통화정책회의 中> 8월 소매판매 YoY(13일) (n/a, 10.6%, 10.5%) 8월 광공업생산 YoY(13일) (n/a, 6.3%, 6.0%) 歐洲> 8월 산업생산 MoM (n/a, n/a, -0.4%)	美> 8월 소매판매 추정 MoM (n/a, n/a, 0.6%) 8월 광공업생산 MoM (n/a, n/a, 0.6%) 獨> ZEW 서베이 예상 (n/a, n/a, 25.0)	美> FOMC 통화정책회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 MoM (n/a, n/a, 0.1%) 歐洲> 8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n/a, n/a, 0.2%)	美> 8월 주택착공건수 MoM (n/a, n/a, 0.2%) 日> 8월 무역수지(십억엔) (n/a, n/a, -268.4)	

정리: 한국투자증권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주요 이머징증시 혼조세, 중국 휴장

- ▶ 상해종합지수는 항일전승절 기념일로 3~4일 휴장, 7일 개장 예정
- ▶ 홍콩H지수는 1.4%하락, 전승절 이후 본토증시의 변동성 확대 우려로 약세
- ▶ 자카르타종합지수는 0.4% 하락, 인프라 투자지연과 해외자금 유출로 약세
- ▶ VN지수는 0.5% 상승, 시중은행 환율 하락, 해외자금 유입, 저가 매력도 부각 등으로 강세

■ 중국 시장

항일전승절 기념일로 3~4일 휴장, 7일 개장 예정.

■ 홍콩 시장

홍콩H지수 1.4% 하락,
에너지, 은행, 보험, 자동차
등 업종 약세

홍콩H지수는 1.4% 하락한 9,169.6p로 마감하며 최근 2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ECB의 양적완화 방침과 지표 호조로 상승 출발했으나 미국금리 인상 지연 기대감으로 장중 약세로 전환했고 낙폭도 확대됐다. 전승절 이후 본토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란 시장 우려가 고조됐고 다음주 8월 실물지표 발표를 앞둔 경계심리도 부각됐다. 에너지, 은행, 보험, 자동차 등 업종이 하락한 반면 필수소비재, 전력, 헬스케어 등 종목은 상승 마감했다. 한편 본토증시 휴장으로 후강통 거래는 중지됐다.

■ 인도네시아 시장

자카르타종합지수 0.4%
하락, 유틸리티, 헬스케어,
에너지, 금융 등 업종 약세

자카르타종합지수는 0.4% 하락했다. 인프라 투자지연으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또한 외국인 비중이 높은 인도네시아 증시에 루피아의 약세가 8주 연속 지속되자 해외자금이 유출되며 증시가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유틸리티, 헬스케어, 에너지, 금융, 통신 등이 하락했다.

■ 베트남 시장

VN지수 0.5% 상승, 금융,
운송, 에너지 등 업종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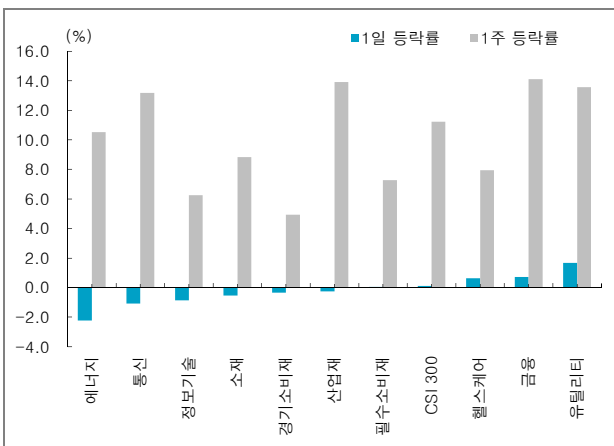
VN지수는 장중 등락을 보인 끝에 강세로 마감했다. 제조업PMI 하락 등이 부정적으로 작용했으나 시중은행 환율 하락, 해외자금 유입, 저가 매력도 부각 등이 호재로 작용했다. 내수 휘발유 가격이 인하됐다는 소식도 알려지면서 매수여력이 강해졌다. 금융, 운송, 에너지 관련주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주요 이머징마켓 뉴스

시장 구분	주요 내용
중국	상반기 상장회사의 현금배당이 447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00%로 증가- 증권일보 최근 중국증시의 등락이 위안화의 SDR 진입 여부에 영향 주지 않을 것 -IMF 상해황금거래소에 따르면 8월 중국 황금가격이 233.8/g으로 월초대비 8% 상승
러시아	통계국, 8월 28일 기준 금 및 외환보유액 3,664억 달러 (직전치 3,646달러)
러시아	8월 마켓 PMI 종합 49.3(직전치 50.9)
브라질	8월 마켓 PMI 종합 44.8(직전치 4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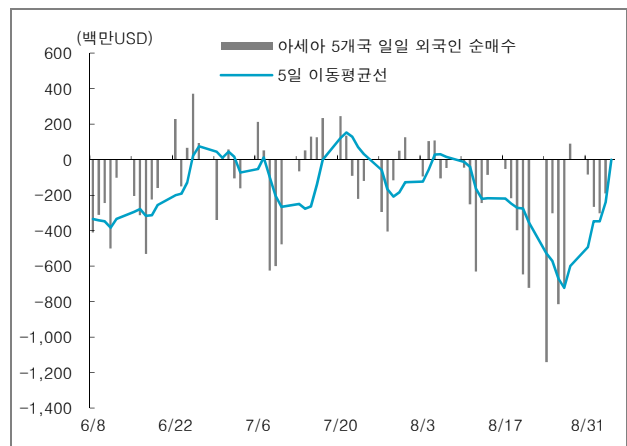
주요 이머징마켓 차트

[그림 1] 중국 CSI300 업종별 등락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 아세아 5개국* 외국인 순매수 규모 추이



주: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5개국의 달러자금 흐름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분	9/4(금)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3,160.17	휴장	7.96	-1.43	-2.30
홍콩 H	9,169.59	-1.42	-7.04	-5.87	-23.49
중국 차스닥	1,855.03	휴장	-1.85	-7.10	26.04
인도 SENSEX	25,135.00	-2.44	-4.76	-4.37	-8.60
인도네시아 JCI	4,415.34	-0.40	-0.69	-2.09	-15.53
태국 SET	1,370.10	-0.97	0.30	-0.89	-8.52
베트남 VN	556.81	0.45	0.18	-1.41	2.05
MSCI 이머징마켓	801.48	0.60	-2.29	-2.11	-16.19

주: 4일 오후 6시 06분 기준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로 사흘 만에 큰 폭으로 하락

- 미국 증시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 완화 지속 방침과 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9월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고조되며 혼조세로 마감. 1,920P선을 회복하며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투자,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 매도세로 하락 반전, 매도세가 확대되며 1.5% 이상 급락, 7거래일 만에 재차 1,890P선 아래로 밀려나며 1,886P로 마감.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로 4% 이상 급락세를 보이며 사흘 만에 하락 마감.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투자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로 급락세를 연출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중국 냉동물류회사 인수 추진 소식에 CJ대한통운이 상승했으며, 실적 호조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이수페타시스가 닷새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13% 이상 급등. 실적 정상화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에 LS가 강세를 보였으며, 우리로에 피인수됐다는 소식에 주연테크가 강세를 보임. 또한, 삼성전자의 사물인터넷 사업 본격화 기대감에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으며, 삼성페이 흥행 기대감에 한국정보인증을 비롯해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짐. 반면, 금융당국의 불공정 거래 수사 본격화 소식에 한미약품을 비롯해 제약,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지주사 전환으로 리홈쿠첸에서 분할된 부방과 쿠첸은 재상장한 첫날 급락세를 보임

종목/테마	내 용
CJ대한통운(000120) ▶179,500(+1.41%)	중국 물류사 인수 추진 소식에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최대 냉동물류회인 '룽칭물류' 인수 추진 소식에 상승. 양측은 현재 막바지 협상 단계로 5,000억 원 안팎 수준에서 인수가격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룽칭물류'는 중국 최대 냉동물류회사로, 베이징, 광저우, 청두, 시안, 선양 등 중국 전역에 48개 지점과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운송차량은 1,200여대를 보유중. 특히 냉동탑차와 위험물 수송차량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냉동물류 및 위험물 전문 운송회사로 특화돼 있음
이수페타시스(007660) ▶6,170(+13.42%)	실적 호조세 지속 전망에 초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폰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장비와 Server용 MLB 매출액 증가에 힘입어 상반기까지 실적 턴어라운드 성공했으며, 3분기에도 실적 호조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초강세 - 주요 거래선이 시스코(Cisco), 알카텔-루슨트(Alcatel-Lucent), 구글, 삼성전자 등으로 다변화 됐으며, 화웨이 등 신규 거래선이 지속적으로 추가돼 3년간 성장성은 확보했다는 평가
LS(006260) ▶30,950(+2.65%)	실적 정상화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분기를 기점으로 실적 악화로 반영될 부실은 대부분 사라져 실적 정상화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에 강세 - 자회사 LS니꼬동제련은 동가격 변화에 연동되지 않는 안정적인 수익모델로 설비증설에 의해 기존 대비 20%정도 처리 용량이 늘어났으며, LS전선도 해외법인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 가능성이 해소됨
삼성페이 관련주	삼성페이 흥행 소식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페이가 출시 8일 만에 등록카드가 20만장을 돌파하는 등 흥행 소식에 관련 종목들이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연내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할 것이라는 소식에 교통카드 관련 종목들도 동반 강세 - 한국정보인증(053300, +6.30%), 에이텍(045660, +14.89%), 아모텍(052710, +7.83%), 현대정보기술(026180, +7.44%), 파트론(091700, +6.05%), 에이텍티앤(045660, +4.85%) 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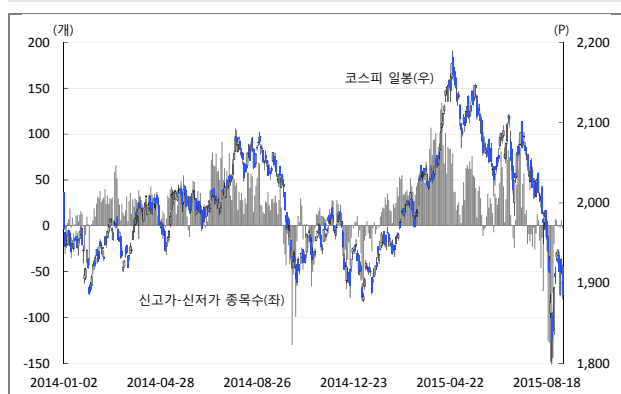
주간 국내외 증시 동향 및 52주 신고가 종목 현황

- 중국이 전승절을 맞아 상해 증시가 이를 연속 휴장한 가운데 미국과 유럽 증시는 불안감이 다소 완화된 모습. 그러나 미국 증시는 경제지표 호조에 불구하고 9월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며 추가 상승이 제한되는 양상. 반면, 유럽증시는 ECB의 추가 경기부양책 도입 가능성이 제기되며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상승세를 보임
- 국내 증시는 중국과 미국발 우려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며 주 후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임. 외국인이 22일 거래일 연속 순매도 행진을 이어간 가운데 금융투자,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 매도세까지 더해지며 코스피는 1,880P선까지 추락했으며, 코스닥은 650P까지 밀려나며 한주를 마감
- 주가 하락으로 신고가 종목이 급감한 가운데 중국의 대형유통망과 칠일자본 연합기업들과 한국과 중국을 잇는 국제 온라인 보세면세사업에 진출하는 처음앤씨는 중국 중신그룹과 마윈 알리바바 회장의 투자 지원 기대감에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유진그룹이 5% 이상의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에 등극했다는 소식에 동양이 신고가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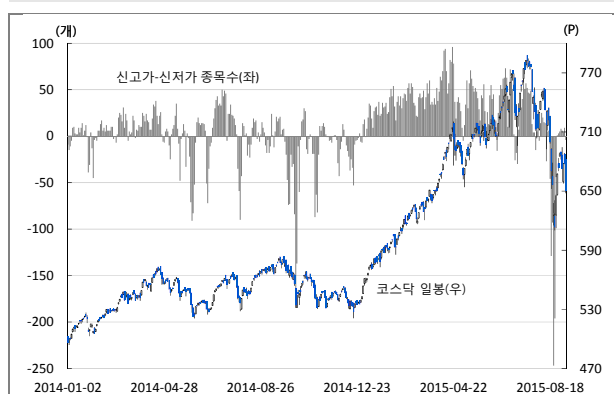
구분	섹터	업종	종목	주가(원)	등락률 (%)	섹터	업종	종목	주가(원)	등락률 (%)
유가증권	산업재	비금속	동양	2,875	15.5	경기소비재	유통업	SG세계물산	894	16.7
코스닥	유틸리티	전기,가스	지에스이	2,180	11.8	경기소비재	인터넷	처음앤씨	15,000	33.9
	건강관리	소프트웨어	비트컴퓨터	7,940	15.1					

주) 상기 종목들은 9월 04일 장중 기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던 종목들의 현황이며, 등락률은 주간 등락률입니다.

코스피 일봉과 신고가-신저가 종목수 추이



코스닥 일봉과 신고가-신저가 종목수 추이



단기 유망종목: 피에스텍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피에스텍 (002230)	7,050 (-1.8)	7,180 (9/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의 스마트 그리드 사업 활성화에 따른 디지털 전력량계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 지속 스마트미터기 매출 비중 증가와 건설사로의 공급물량 확대를 통한 실적 개선세 지속 전망 1천억원을 상회하는 순현금을 바탕으로 설비투자과 사업 다각화를 통한 성장성 강화 예상
농심 (004370)	356,500 (-3.9)	371,000 (9/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곡물 가격 및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원재료비 안정과 해외시장 성장에 따른 실적 개선세 지속 '짜왕' 출시를 기반으로 라면시장 점유율 회복에 성공한 가운데 프리미엄급 제품 라인업 강화 예상 하반기에도 ASP 상승과 제품믹스 개선을 통한 수익성 개선 추세 지속 전망
유비벨록스 (089850)	18,400 (+14.3)	16,100 (9/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올해 매출액은 888억원(+43.5% YoY), 순이익은 76억원으로 2년간 누적적자 55억원을 뛰어넘는 흑자전환에 성공할 전망 중국/미국의 금융IC칩 교체수요 집중공략과 공장 및 대형소형물 In-door LBS(Location Based System) 시스템 구축에 주목할 필요. 미주향 스마트카드 매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중국 진출과 신사업인 LBS플랫폼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
이엔에프테크놀로지 (102710)	18,750 (-14.4)	21,900 (8/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용 케미칼 전문 생산기업으로 2014년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간 식각액 부문의 가파른 성장세 확인 LCD용 신너의 경우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 80%로 독보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시장 진출로 매출처 다변화. 하반기에도 중국 자회사의 높은 성장세와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예상
MDS테크 (086960)	25,100 (-3.8)	26,100 (7/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베디드 시스템의 전 분야를 아우르는 소프트 전문기업으로 Connected Car, infotainment Car 개발 경쟁 가속화에 따른 수혜 예상 다양한 산업들과 IT와의 융합화를 감안할 때 임베디스 소프트웨어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세에 따른 구조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가운데 외산 SW를 대체하는 국방사업 수주 확대와 고객사의 빅데이터 도입 확산에 따른 성장 모멘텀도 내재
넥센타이어 (002350)	14,950 (+16.8)	12,800 (7/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OE(Original Equipment) 타이어 비중 증가, 고수익 제품인 UHPT(Ultra-High Performance Tire) 비중 증가 등 제품믹스 개선과 원재료 투입단가 하락에 따른 수익성 개선 예상 미국의 중국산 타이어 관세 부과에 따른 수혜가 하반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저유가에 따른 주행거리 증가로 유발되는 타이어 교체수요는 글로벌 타이어 수요 둔화를 일정부분 보완할 전망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SK텔레콤 외 5개 종목

- 신규 편입 종목

SK텔레콤 (017670)	- 정부의 규제 리스크가 완화되는 가운데 자사주 매입 가능성, 배당금 증액 가능성 등 주주우선시 정책 강화에 대한 기대 유효					
	- 비통신사업의 성장성이 제고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 트래픽 증가, 마케팅 비용 감소 등으로 3분기 수익성 개선 예상. 방통위 제지(10월1일~7일 영업정지)에 따른 수익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원, 십억원, 배)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2014. 12A	17,164	1,825	1,801	25,154	10.7
	2015. 12F	17,169	1,849	1,800	25,027	9.8

- 편입 제외 종목: AJ렌터카(시세부진으로 제외 -20.9%)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5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현대위아 (011210)	107,000 (+1.9)	105,000 (9/03)	8,022	502	415	15,616	6.9
			- 중국 자동차 수요 둔화와 현대/기아차의 판매량 감소로 수익성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나 증설과 점유율 확대를 통한 외형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 - 엔진 믹스 개선과 신규 공장 가동에 따른 성장성, 환율 상승에 따른 수익성 개선 등을 감안하면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삼성전자 (005930)	1,129,000 (+3.7)	1,089,000 (9/01)	197,087	26,512	19,497	143,876	7.8
			- 2분기 IT제품 수요의 전반적인 부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부문의 영업이익률은 시장 기대치를 상회. 20나노공정 비중이 4분기 70% 수준까지 상승하면서 원가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세 지속 예상 - 하반기 시스템LSI부문의 실적 개선, 역사적 최저 수준의 밸류에이션, 우호적인 환율 환율, 주주환원정책 실시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투자매력도 제고 가능성 상존				
강원랜드 (035250)	40,600 (-1.9)	41,400 (7/31)	1,649	591	461	2,274	17.9
			- 메르스 영향에 따른 일시적인 실적 둔화보다는 성수기 진입, 테이블 증설효과, 가동률 상승효과, 인력확충 효과 등을 주목할 필요. 안정적인 실적 모멘텀과 배당매력 재부각 가능성 상존 - 제2 영동고속도로 개통, 평창올림픽 개최, 워터월드 사업, 중국인 방문객 증가 등 장기 성장 잠재력 확보				
코웨이 (021240)	81,700 (-16.2)	97,500 (7/20)	2,302	432	325	4,383	18.6
			- 환경가전 렌탈 시장의 성장세에 힘입어 환경가전 렌탈 부문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렌탈 가입자 증세와 ARPU(가입자당 평균 렌탈요금) 상승세 지속 예상 - 외부 변수에 강한 비즈니스 및 수익 구조, 안정적인 국내외 성장 모멘텀, 판매채널 다각화, 배당 매력도, 해외사업의 잠재력 등을 주목할 필요				
LG생활건강 (051900)	765,000 (+23.8)	618,000 (1/2)	5,083	600	427	25,640	29.8
			- 2015년에도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면세 매출호조와 방문판매 매출증가로 화장품 부문의 실적은 개선세 지속 예상 - 화장품 면세채널과 중국사업 정상화, 생활용품과 음료부문의 경쟁완화 등에 따른 수익성 개선을 주목할 필요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강원랜드, LG생활건강, 삼성전자, 현대위아, SK텔레콤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무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휴대폰: 스마트와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는 아직...

■ 삼성전자가 7번째 스마트와치인 '기어S2'를 발표

삼성전자가 7번째 스마트와치인 '기어S2'의 제품스펙을 공개했다. 모델명은 이전의 기어S를 그대로 이어받았지만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출시한 스마트와치 대비해서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존재한다. 1) 사각형 화면 대신에 원형 디스플레이를 처음으로 장착했고, 2) 화면 테두리의 금속을 돌려 기기를 조작하는 방식을 사용했으며, 3) 모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4) NFC를 통해 모바일 결제를 이용할 수 있고, 5) 무선충전이 가능하며, 6) 스마트폰과 떨어져 있더라도 WiFi와 3G를 통해 통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어S2는 이전에 삼성전자가 출시한 스마트와치 모델들에 대비해 한층 더 경쟁력이 강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 애플와치 출시에도 불구하고, 2Q15 글로벌 스마트와치 판매는 예상보다 부진

지난 4월 24일에 출시된 애플와치는 첫분기인 2Q15에 400만대 정도의 판매대수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애플와치가 6월부터 급격하게 판매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어 2Q15 글로벌 스마트와치 판매는 예상보다 부진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3분기에 삼성전자에 이어 LG전자도 1,200달러 가격대인 LG와치 어베인 럭스(LG Watch Urbane Luxe)를, 화웨이도 첫번째 스마트와치인 '화웨이 와치'를, 레노보는 모토360의 후속모델을 각각 출시하여 글로벌 스마트와치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다. 하지만 2Q15 판매가 부진했던 것을 감안하면 2015년 글로벌 스마트와치의 판매대수는 기존 예상치인 2,650만대를 하회할 전망이다.

■ 스마트와치 구매를 꺼리는 몇 가지 요인들

이처럼 소비자들이 예상보다 스마트와치 구매를 꺼리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고 판단된다. 1) 샤오미의 미밴드, Fitbit의 charge 등의 스마트밴드가 많은 기능들을 탑재한 반면 가격(미밴드는 \$13~\$19, charge는 \$77~\$296인데 반해 애플와치는 \$399~\$17,000)은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하여 스마트와치에 대한 수요를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고, 2) 현재까지는 스마트와치에서 구현되는 기능들이 대부분 스마트폰에서 구현이 가능하여 소비자들의 추가 지출 욕구를 저해하고 있으며, 3) 작은 크기로 인해 배터리 용량이 작을 수 밖에 없는 것도 단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4) 전통 시계는 시간만 확인되면 되지만 스마트와치는 다양한 기능들이 구현되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화면의 크기가 너무 작고, 5) 현재까지 사용할 수 있는 App의 수가 너무 적으며, 6) 대부분의 기능들이 스마트폰과의 연동을 통해서 구현되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 스마트와치 관련 부품업체들의 실적 눈높이를 다소 낮추기를 권고

이에 따라 스마트와치가 스마트폰 이후의 차세대 성장동력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기존의 기대감은 낮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스마트와치 관련 부품업체들의 실적 눈높이를 다소 낮추기를 권고한다. 향후 스마트와치의 고속 성장을 위해서는 디자인, 가격, 배터리용량, 디스플레이, 충전방식, App, 통신 등에서의 여러가지 혁신들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기 보고서는 2015년 9월 3일 당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송승연(seungyeon.song@truefriend.com) ☎ 02-3276-6273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8/28(금)	8/31(월)	9/1(화)	9/2(수)	9/3(목)	9/4(금)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937.67	1,941.49	1,914.23	1,915.22	1,915.53	1,886.04	
	등락폭	29.67	3.82	-27.26	0.99	0.31	-29.49	
	등락종목	상승(상한)	659(0)	371(2)	223(0)	352(0)	401(1)	115(3)
		하락(하한)	154(0)	446(1)	600(0)	448(0)	396(0)	717(0)
	ADR	90.31	87.46	85.63	81.38	78.18	72.55	
	이격도	10 일	101.60	101.95	100.74	100.92	100.93	99.32
		20 일	99.01	99.43	98.27	98.61	98.92	97.72
	투자심리	40	50	50	60	70	70	
	거래량 (백만 주)	447	351	324	342	297	358	
	거래대금 (십억 원)	6,519	6,024	4,831	5,014	4,624	4,643	
코스닥	코스닥지수	687.96	687.11	672.94	678.02	678.25	650.45	
	등락폭	14.25	-0.85	-14.17	5.08	0.23	-27.80	
	등락종목	상승(상한)	659(3)	371(3)	223(3)	352(6)	401(5)	133(1)
		하락(하한)	154(0)	446(0)	600(0)	448(0)	396(0)	934(0)
	ADR	91.55	88.43	87.09	83.68	81.46	74.48	
	이격도	10 일	103.24	103.65	101.93	102.58	102.28	97.74
		20 일	98.27	98.42	96.67	97.77	98.25	94.89
	투자심리	40	50	50	60	70	70	
	거래량 (백만 주)	434	390	457	487	553	602	
	거래대금 (십억 원)	2,606	2,475	2,915	3,207	3,141	3,551	

◆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673.3	1,157.3	752.1	220.8	108.2	201.1	31.1	15.4	175.604	86.2
	매도	2,469.2	1,184.4	970.6	294.2	138.3	204.5	70.5	20.7	242.5	44.7
	순매수	204.2	-27.1	-218.5	-73.3	-30.1	-3.4	-39.5	-5.4	-66.9	41.5
	9월 누계	553.9	-244.4	-471.1	-354.7	-1.5	60.0	-108.3	-19.7	-46.9	161.6
	15년 누계	4,072.1	2,144.3	-7,221.8	-5,512.5	-1,004.2	-4,563.8	-812.0	-960.5	5,631.2	1,005.4
	코스닥	매수	3,277.3	159.0	115.1	36.1	10.5	33.9	7.1	3.0	24.6
매도		3,091.8	233.2	225.4	69.8	33.4	48.5	20.2	3.9	49.6	33.1
순매수		185.5	-74.2	-110.2	-33.7	-22.9	-14.7	-13.1	-0.8	-24.9	-1.1
9월 누계		395.1	-139.2	-245.6	-73.5	-46.5	-41.6	-21.0	-0.4	-62.6	-10.3
15년 누계		1,446.6	-765.6	853.6	-450.3	343.6	934.3	-70.5	-277.9	374.4	-1,534.7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12,605	서비스업	-11,521
운수장비	12,410	화학	-9,720
제조업	3,551	의약품	-7,135
기아차	9,968	한미약품	-7,313
삼성전자우	7,388	아모레퍼시픽	-6,328
하나투어	4,456	한미사이언스	-5,481
현대엘리베이	4,445	KODEX 200	-3,565
LG디스플레이	3,320	POSCO	-2,697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26,709	서비스업	-34,232		
운수장비	8,570	화학	-15,434		
유통업	2,484	의약품	-10,776		
현대차	6,867	한미약품	-9,997		
삼성전자	6,598	한미사이언스	-9,249		
LG디스플레이	5,867	SK	-8,890		
삼성SDI	4,352	NAVER	-6,560		
삼성전기	4,287	엔씨소프트	-5,482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서비스업	1,575	화학	-2,288
운수창고	899	의약품	-1,643
제조업	530	비금속광물	-1,493
TIGER 경기방어	2,315	아모레퍼시픽	-1,165
KODEX 인버스	1,301	대웅제약	-1,014
엔씨소프트	1,234	삼성전자	-927
현대글로벌비스	846	박산	-746
제일기획	618	현대건설	-633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27,983	서비스업	-16,382
제조업	8,437	화학	-15,217
통신업	3,391	의약품	-14,729
삼성전자	13,786	한미약품	-8,119
삼성에스디에스	7,128	아모레퍼시픽	-7,983
삼성SDI	5,899	LG생명과학	-3,532
TIGER 200	3,706	아모레G	-3,010
SK텔레콤	3,567	SK	-2,998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54,993	서비스업	-92,597
운수장비	27,026	화학	-54,126
통신업	6,971	의약품	-52,187
LG디스플레이	15,904	한미약품	-37,220
기아차	15,066	KODEX 레버리지	-31,872
삼성SDI	13,861	아모레퍼시픽	-25,001
현대차	12,413	한미사이언스	-20,425
삼성에스디에스	10,248	SK	-19,611
삼성전기	9,520	아모레G	-11,807
SK텔레콤	8,288	CJ CGV	-9,277
삼성전자우	7,644	엔씨소프트	-8,646
TIGER 200	6,622	POSCO	-8,573
KODEX 200	5,145	삼양홀딩스	-7,792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25,383	운수장비	-18,928		
증권	8,293	음식료품	-14,660		
화학	3,557	의약품	-5,132		
삼성전자	39,875	LG화학	-15,648		
롯데쇼핑	13,443	기아차	-12,976		
롯데케미칼	12,850	현대차	-12,645		
POSCO	8,869	삼성SDI	-9,085		
LG디스플레이	8,682	SK하이닉스	-8,500		
엔씨소프트	7,978	TIGER 200	-6,897		
한미약품	6,339	삼성전자우	-6,726		
아모레퍼시픽	4,560	SK	-6,617		
현대중공업	4,553	한미사이언스	-6,419		
현대모비스	4,502	롯데제과	-5,653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도
	순 매 수		
IT부품	3,909	소매	-6,680
디지털컨텐츠	2,814	연구,개발	-3,063
전문기술	2,797	도매	-2,846
파트론	2,710	부방	-6,336
CJ E&M	2,346	바이오메드	-2,057
컴투스	2,253	NICE평가정보	-1,965
위메이드	943	로엔	-1,647
KH바텍	933	CJ프레시웨이	-1,139

	연 기 금		순 매 도
	순 매 수		
IT부품	2,614	제약	-7,078
기계,장비	1,646	소매	-3,102
방송서비스	1,537	연구,개발	-2,698
젠크스	2,466	셀트리온	-3,137
CJ오쇼핑	1,759	부방	-3,137
파트론	1,186	바이오메드	-1,779
KH바텍	979	메디톡스	-1,707
CJ E&M	791	다음카카오	-1,705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도
	순 매 수		
화학	381	출판,매체복제	-331
음식료,담배	252	소프트웨어	-229
IT부품	204	도매	-185
네오팜	497	씨젠	-376
하림홀딩스	242	에스엠	-329
아모텍	183	한글과컴퓨터	-227
셀트리온	160	CJ E&M	-200
코오롱생명과학	154	녹십자셀	-188

	보 험		순 매 도
	순 매 수		
IT부품	2,591	제약	-8,253
기계,장비	737	전문기술	-5,498
화학	354	의료,정밀기기	-1,752
파트론	749	CJ E&M	-5,171
KH바텍	640	메디톡스	-3,704
비츠로셀	615	메디포스트	-2,102
에버다임	414	부방	-1,381
벽스	356	셀트리온	-1,098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도
	순 매 수		
IT부품	15,299	제약	-26,493
기계,장비	2,898	소매	-14,141
방송서비스	1,527	연구,개발	-10,991
파트론	6,642	부방	-14,433
젠크스	3,744	메디톡스	-8,630
아모텍	3,580	바이오메드	-7,671
KH바텍	3,293	다음카카오	-7,002
컴투스	3,077	셀트리온	-6,584
CJ오쇼핑	1,560	에스엠	-5,803
하림홀딩스	1,240	CJ E&M	-4,189
나이스정보통신	1,179	메디포스트	-3,957
솔브레인	1,159	오스템임플란트	-3,940
비츠로셀	1,039	NICE평가정보	-2,717

	외 국 인		순 매 도
	순 매 수		
출판,매체복제	4,903	제약	-11,723
기타서비스	2,767	IT부품	-7,873
일반전기전자	971	종이,목재	-7,716
에스엠	4,902	삼성엘엔에스	-7,532
위메이드	3,495	CJ E&M	-3,484
NICE평가정보	2,763	인바디	-3,383
OCI머티리얼즈	2,566	메디포스트	-3,332
메디톡스	1,864	코나아이	-3,264
에이치엘비	1,822	바이넥스	-3,258
엑토즈소프트	1,772	씨젠	-3,156
코스온	1,173	다음카카오	-2,903
한글과컴퓨터	1,091	오성엘에스티	-2,515
다우데이터	1,064	한국전자금융	-2,508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일성신약	34 일	모토닉	12 일
현대차	20 일	광전자	8 일
롯데제과	18 일	한국철강	8 일
대덕GDS	13 일	넥센타이어	7 일
서연	12 일	제일모직	7 일
SKC	12 일	동국제강	6 일
동양	11 일	코오롱	6 일
LG	11 일	POSCO	6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솔브레인	6 일	한국정밀기계	10 일
이베스트투자증권	5 일	메가스터디	8 일
매일유업	4 일	KH바텍	7 일
서부T&D	4 일	시그네텍스	6 일
이오테크닉스	4 일	비에이치아이	6 일
서울반도체	4 일	GS홈쇼핑	5 일
우주일렉트로	4 일	파라다이스	5 일
성우하이텍	3 일	동진썬미켄	2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현대차	82,574	삼성전자	163,570
기아차	72,361	제일모직	62,886
롯데쇼핑	42,839	한미사이언스	35,145
LG디스플레이	38,718	NAVER	27,056
삼성SDI	34,964	한미약품	26,736
롯데제과	34,833	엔씨소프트	26,090
유니드	32,186	삼성전기	23,639
SK텔레콤	30,247	롯데케미칼	20,162

KOSDAQ			
기	관	외	국 인
아모텍	5,724	동서	15,998
CJ오쇼핑	4,931	에스엠	7,751
KH바텍	4,386	로엔	4,998
솔브레인	3,962	파라다이스	4,161
박스	3,440	GS홈쇼핑	4,147
이지바이오	2,393	CJ오쇼핑	4,115
하림홀딩스	2,222	액토즈소프트	4,065
티씨케이	2,178	한글과컴퓨터	3,418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전기,전자		54,993	25,383 80,376
삼성전자		4,853	39,875 44,728
LG디스플레이		15,904	8,682 24,586
삼성에스디에스		10,248	2,198 12,446
KODEX 200		5,145	1,857 7,002
삼성중공업		547	1,795 2,342
롯데푸드		1,637	645 2,281
한솔테크닉스		1,211	916 2,128
대우조선해양		266	1,658 1,924
이수페타시스		163	1,617 1,780
삼성화재우		39	968 1,007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방송서비스		1,527	55 1,582
연료광업		0	61 61
아모텍		3,580	67 3,648
KH바텍		3,293	86 3,379
나이스정보통신		1,179	26 1,205
비츠로셀		1,039	105 1,144
모두투어		36	912 948
유비벨록스		146	308 454
동국제약		324	109 433
박스		374	34 409
GS홈쇼핑		192	196 389
파라다이스		158	145 303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TIGER 라틴	17 일	하이트진로	23 일
롯데케미칼	10 일	CJ대한통운	23 일
현대상선	10 일	삼성SDI	22 일
한화	9 일	롯데제과	18 일
한국철강	9 일	퍼시스	17 일
세아베스틸	8 일	LF	13 일
삼성엔지니어링	8 일	일성신약	11 일
현대건설	7 일	LG	11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평화정공	7 일	서울반도체	7 일
메디포스트	7 일	성광벤드	6 일
동진세미캠	6 일	큐렉소	6 일
포스코컴텍	5 일	셀트리온	6 일
원익IPS	5 일	솔브레인	5 일
웹젠	5 일	인터플렉스	5 일
위메이드	5 일	아미노로지스	5 일
인터파크홀딩스	4 일	이베스트투자증권	5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SK하이닉스	-78,715	아모레퍼시픽	-73,420
한미약품	-63,958	롯데제과	-61,635
SK	-61,927	LG화학	-51,448
엔씨소프트	-59,608	삼성SDI	-50,229
KODEX 인버스	-58,159	현대그린푸드	-42,026
KODEX 레버리지	-35,520	SK하이닉스	-30,910
아모레퍼시픽	-35,396	SK텔레콤	-28,793
NAVER	-33,388	KT&G	-22,543

KOSDAQ			
기	관	외	국 인
동서	-16,320	셀트리온	-27,875
삼성엘엔에스	-15,138	다음카카오	-17,321
부방	-14,433	보령메디앙스	-8,363
CJ E&M	-9,889	레드로버	-7,470
위메이드	-9,562	인터파크홀딩스	-7,169
NICE평가정보	-7,197	코나아이	-4,832
에스엠	-7,195	웹젠	-4,205
셀트리온	-6,888	삼성엘엔에스	-3,922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종 목	KOSPI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서비스업	-92,597	-1,248	-93,845
의약품	-52,187	-5,132	-57,320
운수창고	-8,594	-4,562	-13,156
한미사이언스	-20,425	-6,419	-26,844
SK	-19,611	0	-19,611
아모레G	-11,807	-1,245	-13,052
KB금융	-4,289	-2,310	-6,599
한국전력	-4,938	-1,252	-6,189
녹십자	-3,684	-1,348	-5,032
SK네트웍스	-1,663	-2,214	-3,877
현대상선	-2,748	-718	-3,466
SK케미칼	-2,902	-545	-3,447
제일모직	-2,999	-412	-3,410

종 목	KOSDAQ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제약	-26,493	-11,723	-38,216
소매	-14,141	-961	-15,102
의료,정밀기기	-9,955	-3,739	-13,694
부방	-14,433	-697	-15,130
다음카카오	-7,002	-2,903	-9,905
삼성엘엔에스	-2,040	-7,532	-9,572
셀트리온	-6,584	-1,354	-7,938
CJ E&M	-4,189	-3,484	-7,673
메디포스트	-3,957	-3,332	-7,290
바이넥스	-1,513	-3,258	-4,771
씨젠	-899	-3,156	-4,055
인바디	-610	-3,383	-3,994
동서	-1,454	-2,159	-3,613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36	40,332	
아모레퍼시픽	84	29,384	
기아차	367	18,188	
KODEX 200	548	12,616	
SK하이닉스	345	12,124	
현대차	64	9,667	
LG화학	34	7,774	
POSCO	37	6,755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178	12,528	
다음카카오	53	7,028	
메디포스트	29	2,551	
로엔	16	1,540	
코나아이	30	1,323	
매일유업	32	1,147	
에스엠	25	1,077	
웹젠	35	1,069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3,558	3,991,523	
현대차	9,450	1,436,459	
제일모직	7,809	1,292,370	
현대중공업	12,219	1,105,836	
호텔신라	8,633	984,184	
SK하이닉스	22,603	800,161	
기아차	15,278	754,739	
KODEX 200	30,277	697,124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18,732	1,298,139	
다음카카오	6,758	874,500	
CJ E&M	352	551,342	
파라다이스	12,568	279,002	
위메이드	1,318	246,144	
바이로메드	1,306	181,714	
동서	2,994	129,653	
컴투스	1,205	126,058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주 수	순 감	주 수
유통업	3,730	증권	-4,259
통신업	1,168	전기,전자	-3,888
금융업	818	운수창고	-3,620
KODEX 200	3,657	SK하이닉스	-3,714
신성통상	2,070	한진해운	-2,699
KStar 200	2,000	메리츠종금증권	-2,681
디와이	1,630	두산인프라코어	-2,291
현대그린푸드	1,520	SK증권	-1,630
하나금융지주	1,058	대우조선해양	-1,414
SH에너지화학	1,044	KB금융	-1,252
삼성물산	950	삼성중공업	-1,182
신한지주	934	현대상선	-957
기아차	761	페이퍼코리아	-854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순 증	주 수	순 감	주 수
종합건설	1,242	정보기기	-468
IT부품	940	컴퓨터서비스	-378
환경	793	미분류	-195
사회건설	1,278	이지바이오	-329
팜스토리	737	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	-311
코엔텍	640	에스앤씨엔진그룹	-300
대아티아이	462	레드로버	-300
이상네트웍스	355	에스엠	-251
파인테크닉스	321	지엔코	-215
한국토지신탁	251	다날	-207
동서	244	테스	-197
모두투어	230	씨젠	-189
테라젠이텍스	217	포스코 ICT	-155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8/31(월)	9/1(화)	9/2(수)	9/3(목)	9/4(금)
외국인	2,144.3	-244.4	-281.2	-36.7	-7.7	-88.5	-121.1	-27.1
기관계	-7,221.8	-471.1	-437.8	33.3	-278.4	66.5	-40.6	-218.5
(투신)	-4,563.8	60.0	67.2	7.2	0.0	1.3	62.1	-3.4
(연기금)	6,003.5	-63.4	175.1	238.5	6.3	26.0	-31.6	-64.1
(은행)	-960.5	-19.7	-26.5	-6.8	-7.6	-6.6	-0.1	-5.4
(보험)	-1,004.2	-1.5	-36.3	-34.8	-36.0	33.3	31.3	-30.1
개인	4,072.1	553.9	547.1	-6.8	236.8	-29.4	142.3	204.2
기타	1,005.4	161.6	171.9	10.3	49.3	51.4	19.4	41.5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12	2013	2014	8/28(금)	8/31(월)	9/1(화)	9/2(수)	9/3(목)
KOSPI	1,997.1	2,011.3	1,915.6	1,937.7	1,941.5	1,914.2	1,915.2	1,915.5
고객예탁금	18,014.3	14,211.8	15,842.5	22,300.6	20,915.3	22,255.8	22,122.0	21,168.9
(증감액)	334.1	-3,802.5	1,630.7	119.1	-1,385.3	1,340.5	-133.8	-953.1
(회전율)	26.7	29.9	34.0	40.9	40.6	34.8	37.2	36.7
실질예탁금증감	-13,998.7	-10,125.7	-2,121.1	326.4	-1,191.1	1,269.7	-116.3	-639.2
신용잔고(KOSPI)	2,202.9	2,289.7	2,533.3	3,140.4	3,154.8	3,171.7	3,157.7	3,190.9
신용잔고(KOSDAQ)	1,709.5	1,893.1	2,537.4	3,259.4	3,263.5	3,282.8	3,300.8	3,299.1
미수금	1,241.0	929.0	1,176.0	134.2	141.0	121.6	131.5	155.4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8/28(금)	8/31(월)	9/1(화)	9/2(수)	9/3(목)
전체 주식형	79,811	-842	93	178	93	-45	64	74
(ex. ETF)		-165	136	213	108	72	22	41
국내 주식형	62,221	-1,520	94	152	50	-59	82	72
(ex. ETF)		-844	137	187	65	58	40	39
해외 주식형	17,591	678	-2	26	43	14	-18	2
(ex. ETF)		679	-2	26	43	14	-18	2
주식 혼합형	9,487	-1,316	7	64	15	7	-3	3
채권 혼합형	30,645	2,875	63	-7	14	27	30	7
채권형	84,276	9,514	-221	-24	-38	13	60	-294
MMF	115,316	31,835	3,555	-690	-4,424	-1,053	2,279	2,329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8/31(월)	9/1(화)	9/2(수)	9/3(목)	9/4(금)
한 국	2,406	-202	-233	-31	-7	-75	-102	-19
대 만	1,753	-172	-184	-11	-166	3	106	-116
인 도	4,136	-333	-417	-84	-103	-231	-	-
인도네시아	-459	-76	-54	22	-16	-39	-21	-
태국	-2,538	-49	-39	11	25	-28	-46	-
남아공	3,661	93	406	313	36	-23	80	-
필리핀	-209	-42	-42	-	19	-42	-19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4년말	8/28(금)	8/31(월)	9/1(화)	9/2(수)	9/3(목)	9/4(금)
회사채 (AA-)	2.43	1.98	1.99	2.00	1.97	1.95	1.93
회사채 (BBB-)	8.26	7.91	7.93	7.92	7.89	7.88	7.85
국고채 (3년)	2.10	1.72	1.74	1.73	1.70	1.67	1.65
국고채 (5년)	2.28	1.91	1.93	1.93	1.89	1.89	1.84
국고채 (10년)	2.60	2.28	2.30	2.30	2.27	2.28	2.24
미 국채 (10년)	2.20	2.18	2.22	2.15	2.18	2.16	-
일 국채 (10년)	0.33	0.38	0.38	0.36	0.40	0.40	-
원/달러	1,099.30	1,173.60	1,182.50	1,171.80	1,180.70	1,190.30	1,193.40
원/100엔	920.30	969.68	974.29	965.48	983.99	989.77	992.35
엔/달러	119.45	121.03	121.37	121.37	119.99	120.26	120.26
달러/유로	1.22	1.12	1.12	1.12	1.12	1.11	1.11
DDR3 1Gb (1333MHz)	1.34	1.10	1.10	1.10	1.10	1.10	-
DDR3 2Gb (1333MHz)	2.21	1.28	1.28	1.28	1.28	1.27	-
NAND Flash 16Gb (MLC)	2.18	1.52	1.52	1.52	1.52	1.52	-
CRB 지수	233.24	197.62	202.63	196.52	197.30	199.03	-
LME 지수	2,907.6	2,377.6	2,377.6	2,359.7	2,376.1	2,417.5	-
BDI	782	903	903	911	906	891	-
유가 (WTI, 달러/배럴)	53.61	45.22	49.20	45.41	46.25	45.75	-
금 (달러/온스)	1,185.50	1,135.00	1,135.00	1,142.30	1,137.75	1,128.0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31	9/1	2	3	4
美> Fischer 연준 부의장 연설(29일) 韓> 7월 광공업생산 YoY (-3.3%, -1.6%, 1.2%) 유럽> 8월 예비 소비자물가지수 YoY (0.2%, 0.1%, 0.2%)	韓> 8월 수출 YoY (-14.7%, -7.4%, -3.3%) 8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0.7%, 0.7%, 0.7%) 中> 8월 차이신 제조업 PMI (47.3, 47.1, 47.1) 8월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 (49.7, 49.7, 50.0) 美> 8월 ISM 제조업지수 (51.1, 52.5, 52.7) 유럽> 8월 마킷 제조업 PMI (52.3, 52.4, 52.4) 7월 실업률 (10.9%, 11.1%, 11.1%)	日> 8월 본원통화 YoY (33.3%, n/a, 32.8%) 美> 8월 ADP취업자변동(천명) (190, 200, 185) 7월 제조업수주 (0.4%, 0.9%, 1.8%)	유럽> ECB 통화정책회의 韓> 2분기 GDP YoY (2.2%, n/a, 2.2%) 美> 연준, 베이저북 발간	세계> G20 재무장관회의 美> 8월 비농업부문고용자수 변동(천명) (n/a, 217, 215) 8월 실업률 (n/a, 5.2%, 5.3%) 독일> 7월 공장수주 MoM (n/a, -0.8%, 2.0%)
7	8	9	10	11
독일> 7월 산업생산 MoM (n/a, 0.9%, -1.4%)	中> 8월 수출 YoY (n/a, -6.5%, -8.3%) 8월 수입 YoY (n/a, -8.0%, -8.1%) 유럽> 2분기 GDP QoQ (n/a, 0.3%, 0.3%) 日> 2분기 GDP QoQ (n/a, -0.4%, -0.4%)	美> Kocherlakota 연준이사 연설 中> 8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n/a, 1.9%, 1.6%) 韓> 8월 실업률 (n/a, 3.8%, 3.7%)	韓>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日> 7월 기계수주 MoM (n/a, 3.3%, -7.9%) 中> 8월 M2 통화공급 YoY (~15일) (n/a, 13.3%, 13.3%) 8월 신규대출 (십억위안, ~15일) (n/a, 850, 1,480)	韓> 금통위 금리 결정 독일> 8월 최종 소비자물가지수 YoY (n/a, 0.2%, 0.2%)
14	15	16	17	18
日> BOJ 통화정책회의 中> 8월 소매판매 YoY(12일) 8월 광공업생산 YoY(12일) 유럽> 8월 산업생산 MoM	美> 8월 소매판매 추정 MoM 8월 광공업생산 MoM 독일> ZEW 서베이 예상	美> FOMC 통화정책회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 MoM 유럽> 8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美> 8월 주택착공건수 日> 8월 무역수지	

☞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